

강이야기
1
River & Culture



이용수 | (주)오이디수자원부
(lyswater@hanmail.net)

요천

발원지 답사기

일시: 2011년 4월 16일

1. 요천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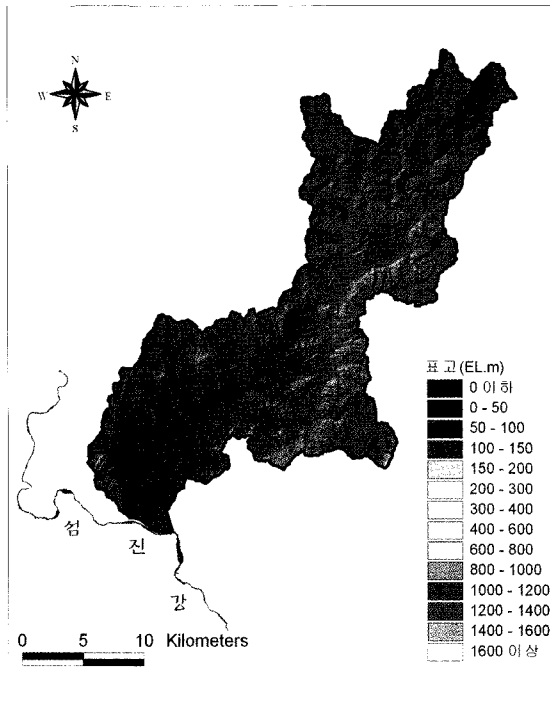
춘향전의 발상지이자, 우리 민족에게 있어 영원한 "사랑의 지킴서" 역할을 하는 춘향가의 고장 남원의 광한루 동쪽에는 남원시를 북에서 남으로 가로지르는 요천(蓼川)이 유유히 흐르며 태를 뺐내며 섬진강을 향해 흐르고 있다.

요천(蓼川)은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덕산리 장안산(EL. 1,236.9m) 남쪽 1220고지 서쪽 계곡인 가운데골 계곡에서 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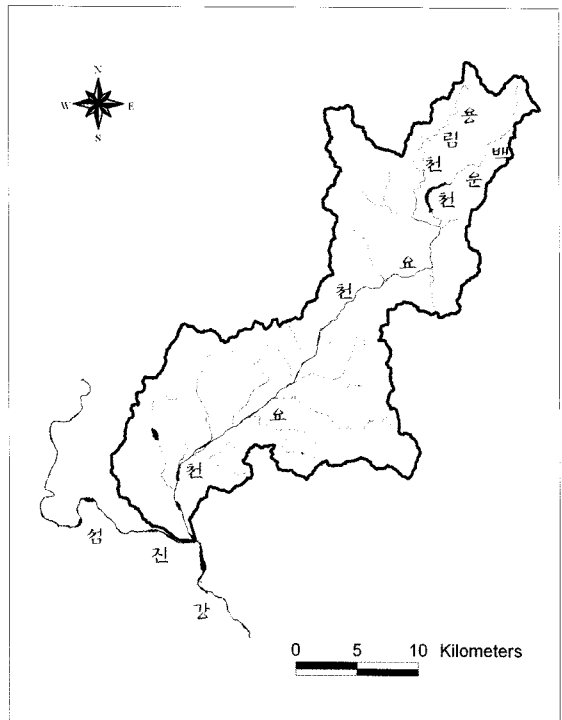
원한다. 발원산을 출발한 요천은 북서쪽계곡을 따라 흘러 계곡 아래에 이르르면 용림천이라는 이름을 얻어 하천의 형태를 띠게 된다.

용림천은 남쪽으로 방향을 틀어 용림제에서 이웃 계곡으로부터 출발한 다른 물줄기와 합쳐 잠시 숲을 고른다. 용림제를 출발한 용림천은 바로 아래 덕산계곡을 지나고 장수군 변암면 죽산리에서 비로소 요천이라는 하천과 만나게 된다.

요천의 시작은 요천이 아니라 용림천인 것이다. 하천의 이



〈그림 1〉 요천 표고분포도



〈그림 2〉 요천 하천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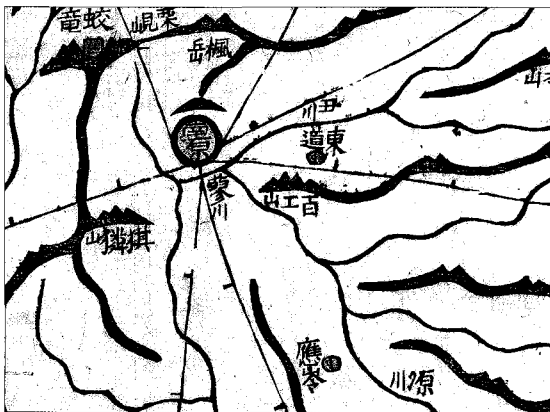
름을 지을 때 장수의 팔공산 쪽 하천이 더 긴 것으로 판단하여 요천이란 이름을 부여하고 나머지 지류라고 생각되는 하천은 다른 이름을 붙인 까닭이다.

이후 요천은 백운천, 두동천, 유정천을 만나면서 남으로 흘러 남서로 흐르면서 전라북도 남원시 산동면 월석리에서 비로소 남원 땅으로 들어간다. 이후 대상천, 강기천, 갈치천, 백암천, 고죽천, 원천천, 주촌천, 광치천, 옥물천, 송내천, 풍촌천을 차례로 만나면서 남원의 넓은 들을 적신 후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에서 비로소 팔공산 너머 원심암에서 발원하는 섬진강과 만나게 된다. 또한 팔공산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의(정확히 남동쪽의) 신무산은 금강의 발원지이므로 장수군은 우리나라 4대 하천 중 2개 하천의 발원지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요천유역의 지형학적 특징으로는 동경 127°14'59"~127°38'6", 북위 35°18'6"~35°39'6" 사이에 위치하며, 북쪽으로는 용담댐유역, 섬진강댐유역 및 오수천유역과 접해 있고, 남쪽으로는 섬진곡성유역 및 섬진강하류유역, 서쪽으로는 순창유역, 동쪽으로는 남강댐유역과 접해 있다. 유역면적은 섬진강유역(4,914.32km²)의 9.90%에 해당하는 486.67km²이다. 유역둘레는 174.69km이고, 유역평균폭은 9.00km, 유역평균표고는 EL. 355.96m, 유역평균경사는 30.69%이다.

요천유역의 행정구역으로는 전라북도 남원시 및 장수군 1도 1시 1군이 일부 또는 전체가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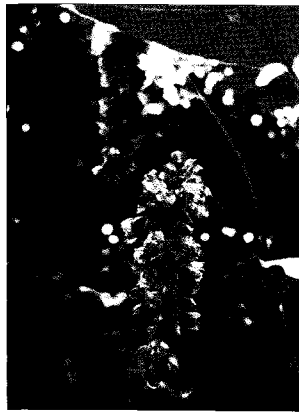
유역내 총면적 중 산림면적은 340.79km²로서 유역면적의 70.02%로 유역 대부분이 산림지대이며, 농경지면적은 82.10



(그림 3) 대동여지도남원 인근

km²로서 유역면적의 16.87%를 차지한다. 시가지면적은 27.20 km²로서 5.59%를 차지하며, 기타 초지, 수역 등이 유역면적의 7.52%인 36.58km²를 차지한다.

요천이라는 이름은 조선 시대에도 있었던 이름이다. 다만, 현재의 원천천과 만나기 전의 요천 이름은 당시는 축천(丑川)이라 불리고 있었다. 즉 현재의 요천은 남원 이전 구간은 축천이었던 것이다.



(그림 4) 여뀌꽃

요천(蓼川)이란 이름은 주변에 만발한 여뀌꽃¹⁾이 매우 아름다워 붙여진 이름이다. 물이 맑고 돌이 깨끗하여 과거 왕실의 진상품인 은어의 주요 서식처였다. 남원에는 일제강점기까지 요천을 통해 소금배, 장삿배가 들어왔었다고 전한다. 예전에 요천

에는 게와 물고기가 많아 밤에는 햇불을 들고 게를 잡는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그 모습이 무척 아름다워 남원팔경 가운데 하나인 금암어화(錦岩漁火)로 꼽히고 있다. 금암어화란 요천에서 밤에 햇불을 켜고 고기를 잡는 풍경을 묘사한 것이다.

문헌상에 있는 요천에 관한 기록으로 이른바 단종(端宗) 생육신(生六臣)의 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추강 남효온(南孝溫: 1454~1492)의 문집인 『추강집(秋江集)』 제2권에 있는 남원(南原)으로 돌아가는 김의동(金意同) 성지(誠之)를 전송하며 임천장(林天章)의 시에 차운한 시를 보면 “지난해 여관에서 밤에 시를 얘기할 때(去年行旅夜談詩) / 가을 팔월 하늘 높고 단풍이 드물었소(八月秋高霜葉稀) / 올해 서로 만나서 몇 날을 함께 했던가(此歲相逢知幾日) / 오늘 아침 이별에 꽃이 처음 날리누나(今朝還別花初飛) / 요천의 봄빛

1) 여뀌: 마디풀과의 한해살이 풀. 줄기는 높이 40~80cm이고 털이 없으며 가지가 많이 갈라진다. 잎은 바소꼴로 어긋나게 나며, 6~9월에 흰 꽃이 피고, 까만 여원 열매를 맺는다. 잎은 매운 맛이 있으며, 축축한 땅이나 사똥가에서 자란다.



(그림 5) 구한말 사진(남원시 동충동 구간의 나룻배)

은 사람의 꿈을 괴롭히고(蓼川春色懊人夢) / 지리산 두견 울음은 돌아갈 길 재촉하네(智異啼鶯催客歸) / 관리의 인끈 없지만 색동옷 있을 테니(縱無腰印萊衣在) / 기뻐하는 자당 모습 마침 보게 되리라(會見喜氣浮慈闈)"라고 되어 있어 요천은 1400년대에도 그 이름이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朝鮮) 중기(中期) 문신(文臣)이었던 상촌(象村) 신희(申欽: 1566년~1628년)의 문집(文集)인 『상촌선생집(象村先生集)』에 있는 『광한루기(廣寒樓記)』에 "호남과 영남의 언저리에 끼어 하나의 큰 도회(都會)가 되고 있는 곳이 이름 하여 남원(南原)이다. 산과 물이 모여드는 곳으로 광한루는 더욱 산수의 전경을 다 갖추고 있는 곳이다. 그 누대가 험린 지 몇 해 만에 부백(府伯) 신공(申公)이 복구를 하였는데, 그곳 승경을 살펴보자면 그 누대를 중심으로 하여 서쪽에는 교룡성(蛟龍城)이 있고, 남쪽에는 금계산(金溪山), 동쪽에는 방장산(方丈山)이 있으며, 물은 방장산에서 발원, 구불구불 멀리 흘러 내려 요천(蓼川)이 되고 다시 꺾어져서 광한루 앞에 와서는 하나의 호수로 변하여 깊고 맑기 마치 하늘의 은하수가 기성(箕星)·미성(尾星) 사이에서 발원하여 남으로 부열성(傅說星)을 거치고 북으로는 귀수(龜宿)를 거쳐 깃과 띠처럼 두르고 있는 것과 같다. 호수 밖에는 넓은 평야, 긴 모래밭, 낭떠러지, 기이한 바위 그리고 도서(島嶼)·화죽(花竹)이 있어 흡사 청성산(靑城山)의 동천(洞天) 속과 같다. 숨겨진 그 고장을 처음 개척했을 때는 아름다운 구슬, 수정 같은 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붉은 물 붉은 언덕이 황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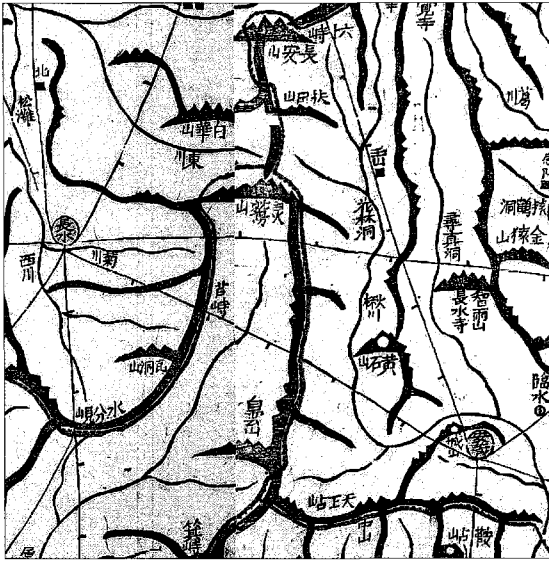
끝이 없었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 1500년대 이전에 요천이라는 이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산서(山西) 조경남(趙慶男) 선생이 저술한 야사(野史)인 『난중잡록(亂中雜錄)』 3권 정유년 (1597년) 편에는 "8월 11일 오후에 흉악한 적이 숙성령(宿星嶺)을 넘어서 혹은 10여 명 혹은 20여 명씩 끊임없이 잇따라 내려보내 원천(原川)의 촌락을 정탐하고, 밤에는 성 밑에 들어와서 엿보고 돌아갔다. 다음날 행장 등이 군사를 거느리고 영(嶺)을 넘어 원천(原川) 원평(院坪)에 주둔하고 선봉이 이미 요천(蓼川) 가에 진출하였는데, 동남 4·50리 안에 연기와 불꽃이 하늘을 가리우고 포성이 땅을 진동하였다."라고 되어 있어 요천이라는 지명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풍이 두드러졌던 조선조 정조(正祖)와 순조(純祖) 때 옥유당(玉莪堂) 한치윤(韓致胤 1765~1814)과 그의 조카인 한진서(韓鎭書)가 함께 편찬한 『해동역사(海東譯史)』 속집 제14권/지리고(地理考)편에 있는 두치강(豆恥江)(섬진강)에 대하여 기술하면서 "《수도제강》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하동성(河東城)의 서쪽에 소수구(小水口)가 있다. 물은 북쪽에 있는 남원성(南源城) -삼가 살펴보건대, 남원(南原)으로 되어야 한다. - 서북쪽에 있는 산에서 나와 동남쪽으로 흘러 곡성(谷城)의 동북쪽 경계를 지나는데, 이곳에서 동북쪽에서 흘러온 한 물이 합류한다. - 삼가 살펴보건대, 바로 요천(蓼川)으로, 그 근원이 장수현(長水縣)의 장안산(長安山)에서 나와 서남쪽으로 흘러 두치강으로 들어간다. -중략-"라고 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때 요천이 장수현(長水縣)의 장안산(長安山)에서 발원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²⁾ 제39권 전라도 남원도호부(南原都護府)편에 "요천(蓼川) : 부의 동남쪽 1리에 있는데 시내 가운데에 바위가 있어 그 모양이 소와 같으므로 우암(牛巖)이라 한다. 축천(丑川) : 축(丑)은 흑축(畜)으로도 쓴다. 부의 동북방에 시냇물이 들이치므로 마을을 설치할 때에 술자(術

2) 한국고전종합DB - 한국고전번역원(<http://db.kitc.or.kr>)



〈그림 6〉 대동여지도요천 발원지 인근



〈그림 7〉 동여도요천 발원지 인근

者)의 말을 따라서 쇠로 소를 만들어 기세를 누르도록 하였다. 이 때문에 축천이라 부르게 되었는데 그 소는 지금도 남아 있다.”라고 되어 있다.

구한말 조선왕조시대에 마지막으로 편찬된 총체적 문물정리 사업의 결과인 『증보문헌비고』 번역문³⁾ 『제20권/여지고 8/산천 2/내/섬강』 편에 보면 “【요천(蓼川)】: 근원이 장수(長水) 육십치(六十峙)의 남쪽 장안산(長安山)에서 나와 서남쪽으로 흘러 수분현(水分峴)을 경유하여 반암천(潘巖川)이 되고, 남원부(南原府)에 이르러 동쪽으로 반야봉(般若峯) (곧 지리산(智異山)의 최고봉(最高峯)이다.)의 원천(源泉)을 지나 꺾여서 서남쪽으로 흘러 주포(周浦)의 금안(金岸)을 경유하여 순자도(鶻子渡)에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다.

즉 요천은 발원지가 장안산이며 애초에 반암천으로 시작하여 남원에서 요천이 되며 순자도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보면 문헌상 요천의 발원지는 대체로 장안산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거의 동시대에 만들어진 고지도를 살펴보면 “대동여지도”나 “동여도”에서 볼 때 백운산(白雲山)보다는 영취산(靈鷲山)을 발원지로 보고 더 긴 것으로 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대적인 해석을 좀 다르다.

두산백과사전을 이용한 네이버 백과사전에 보면 “요천(요천) : 전북 남원시를 흐르는 하천. 길이 60.030km, 유역면적 485.70km²이다. 전북 장수군과 경남 함양군의 경계에 있는 백운산(白雲山:1,278m)에서 발원, 남쪽으로 흘러 남원시의 동쪽 변두리를 지나 전남 곡성군과의 접경지역에서 섬진강에 합류한다. 섬진강 유역 중 가장 넓은 분지인 남원분지를 관개하는 중요 하천으로 교동천(橋洞川)을 비롯한 여러 지류를 거느린다. 섬진강 중류의 호우지역을 흐르므로 요천 하류 지역은 천정천(天井川)을 이루며 수해가 잦은 편이다.”⁴⁾라고 되어 있어, 요천발원지를 백운산으로 보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하는 최신의 수치지형도(1/5,000)를 이용하여 요천 발원지라 주장하는 장수 팔공산, 장안산, 백운산 무령고개 방향의 하천길이를 측정한바 장안산 방향이 팔공산 방향보다 7.8km, 백운산 무령고개(영취산) 방향보다 5.3km 더 긴 것으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요천 발원지는 장안산 쪽이며 현장 답사까지 하여 확인한 바는 장안산 남쪽의 1,220고지 서쪽 계곡인 가운데골 계곡 최상류가 가장 발원지인 것이다.

3) 한국고전종합DB- 한국고전번역원(<http://db.kci.or.kr>)

4) 네이버 백과사전 - <http://100.naver.com/>

(표 1) 요천 발원지 비교

단위: m

방향	팔공산	장안산 덕산계곡										백운산 무령고개 (영취산)
		1	2	3	4	5	6	7	8	9	10	
거리	16,081	23,793	23,820	23,788	23,876	23,849	23,866	23,875	23,879	23,898	23,821	18,590
차이	7,817	105	79	111	22	49	33	24	19	0	77	5,309

(주) 장수군 번암면 번암교 직상류에서 발원지까지의 거리

남원 시내구간의 요천변에는 연장 1,500미터 구간에 걸쳐 팽나무, 왕버들, 서어나무 등으로 구성된 수변보안림(水邊保安林)이 조성되어 있었다. 남원문화원에서 발행한 <남원의 삶과 문화>(2006.12)에 실려 있는 '조선의 임수(水邊保安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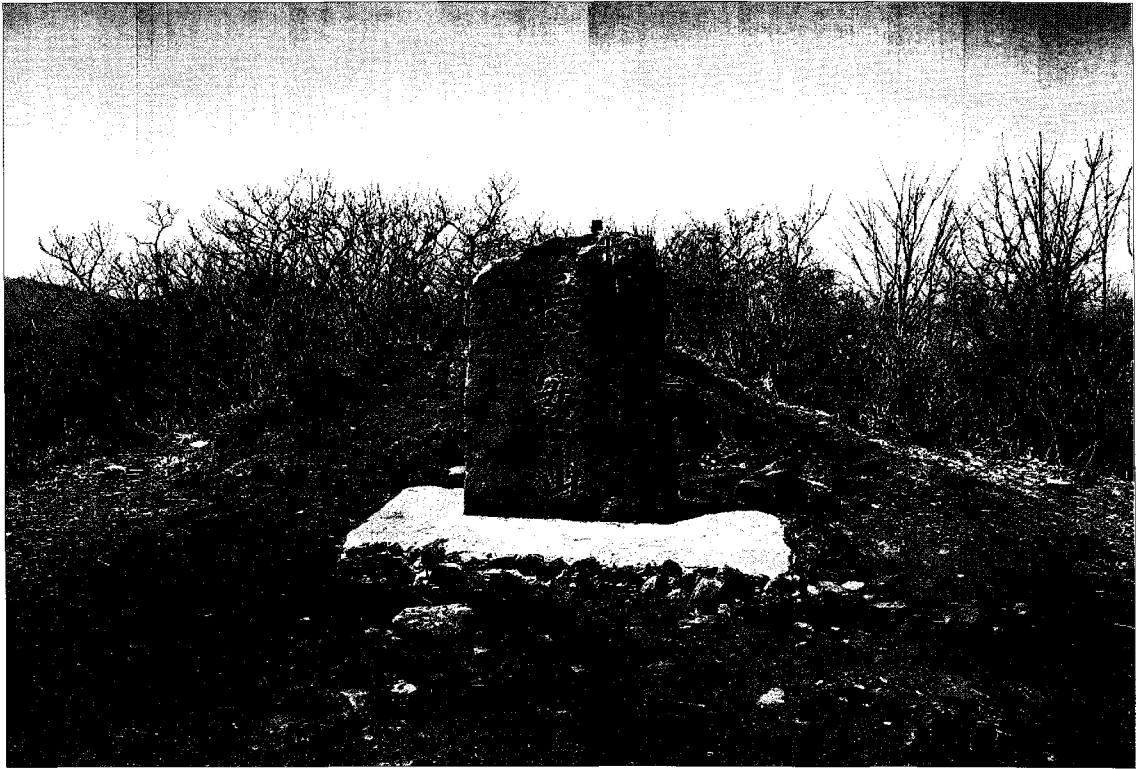
라는 제목의 일제시대(1938년) 논문으로, 촉탁(囑託) 도꾸미 쯔 노부유끼(徳光宣之)가 자료 조사 후 현장을 답사하고 기록한 것이다. 요천에 대한 부분만 추리면 다음과 같다.

1. 명 칭 : 요천임수(蓼川林藪)
2. 소재지 : 전라북도(全羅北道) 남원군(南原郡) 남원읍 도통리(道通里), 죽항리(竹巷里), 쌍교리(雙橋里), 천거리(川渠里)
3. 지 형 : 남원읍내의 동쪽 교외에 있는 삼진강(蟾津江)의 지류인 요천(蓼川)의 서안(西岸)에 연하여 축조된 제방(堤防)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연장길이가 약 3,000m에 이르는 강가 평탄지에 위치한다. 동쪽은 하도(河道)를 사이에 두고 산 구릉에 접해 있고, 서쪽은 남원읍 교외의 넓은 논을 두고 있어 탁 트여 있다.
4. 임 황 : 상류부인 도통리, 죽항리, 지역의 연장 1,500m 사이에 팽나무, 왕버들, 서어나무 등이 있는데, 이곳에는 평균직경 50cm 인 수목 50여 그루 있고, 그 연천(連川)의 분류가 합류되는 가장자리는 연속으로 열식(列生)하지만, 그 밖의 지역은 일반적으로 산생(叢生)하고 있다. 그 밖에 하류부 지역은 근년의 식재와 관계된 벗나무, 포플러 등이 약간 있기는 하나, 주로 미립목(未立木)의 제당수(堤塘藪) 및 가옥 대지 등이다.
5. 기 타 : 총독부 하천조사서에 의하면 "남원읍의 방수제방(防水堤防)은 남원읍성의 상류에서 요천(蓼川)이 그 흐름의 방향을 바꿈으로 읍내를 맞부딪쳐 흐르는 관계로 성곽을 보전하기 어렵게 되므로, 상류(上流) 약 3km 사이의 좌안(左岸) 산기슭에 붙여 완장(頑丈)된 돌제방(石堤)을 축조하기로 하여, 하상(河床)의 암반 위에 거대한 돌을 쌓는 방법인 3분(三分) 내지 4분(四分)의 돌담을 만들고, 배면(背面)도 전부 옥돌(玉石)을 채우는 법은 3할 내외의 흙을 채우고 제방 위에 거목을 심는다. 높이는 대홍수에도 견디기 충분한 것으로 조선에 현존하는 제방 중에 손꼽힐 만큼 훌륭하다. 조

선 선조(宣祖) 30년(1597) 남원성중수(南原城重修) 때에 이 제방을 축조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지금 남원 군민은 년1회 부역(賦役)으로 보수하는 관습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한반도에서 성벽으로서 방수제(防水堤)를 겸하고 있는 것으로 남원읍성을 게재(掲載)하고 있다. 본 방수제의 축조공법은 현존하는 남원 성터의 성벽공법과 유사하며, 그 분류(分流)인 연천(連川)이 합류하는 곳의 가장자리는 특히 높다. 그리고 제방의 윗부분은 통로로 이용되고, 일부에서는 관개용수로가 설치되어 그 남은 물을 이용하는 정미용(精米用)의 수침(水碓) 및 물레방아(水車)가 양쪽 3개소에 설치되어 있다. 본 수림은 방수제방의 양쪽에 있으며, 그 강에 면하는 쪽은 돌담에서 하부(下部)의 법선(法線) 하안(河岸)에 있으며, 경작지 쪽은 모두 이법토축(裏法土蓄)의 아래쪽 과반부(過半部)와 법선 부근의 평지에 있다. 현재 제방 몸체에 있는 것은 뿌리 뽑음을 하지 못하고 가지 밑(枝下)이 매우 낮다. 이러한 것들은 부근의 평지에 성립된 것과 비교 추정해보면 아마도 누차의 보수에 의해 복부(腹付)에 동반해 제방 몸체 안에 매몰되어버린 것으로, 예전에는 제방 기초 부분에 있었을 것이다. 읍의 동쪽 교외에 위치한 향교리(鄕校里)의 문묘(文廟) 앞을 흐르는 소류(小流)의 남안(南岸)인 읍쪽 하안(河岸)에는 연장길이 1,000m에 이르는 곳에 최대 홍고 직경 70cm의 왕버들이 열식(列植)되어 있다.

- 남원의 삶과 문화 제4호, 남원문화원, 2006, p35~38⁵⁾

5) 無人山房 - <http://blog.daum.net/kcs1025/16883125>



〈그림 8〉 장안산

2. 현지답사

요천발원지 답사는 2011년 4월 16일에 실시하였다.

먼저 사무실에서 요천발원지에 관한 여러 책을 참조하니 대체로 팔공산 쪽, 장안산 쪽, 그리고 백운산 쪽을 발원지로 보는 문헌이 많이 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수치지도를 참조한 결과 각각의 발원지로부터 합류 전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니 장안산 쪽이 훨씬 더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장안산을 최장 발원지로 보고 장안산 쪽의 여러 계곡을 대상으로 각 하천의 지도상 길이와 예상하천, 그리고 길이를 비교하여 답사 지도를 만들고 이를 GPS에 담고 또한 종이에 프린트하여 준비를 마쳤다.

전라도에서 지리산, 덕유산, 남덕유산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산인 장안산(長安山)은 장수군 4개 읍면의 중앙에 자리 잡고 이 산 북쪽에서 발원하는 계류는 금강 상류가 되고 동서남쪽에서 흐르는 물은 섬진강 상류가 된다고 하며 영취산으로부터 전달받은 백두대간의 기운을 금남호남정맥을 통

해 충남과 전라도 방면으로 광활하게 전달하는 종산(宗山) 역할을 하는 산이라고 한다.

아침 일찍 출발하여 대전-통영간 고속국도를 따라가다가 익산-장수고속도로로 들어서 장수IC에서 나와 장수 읍내를 거쳐 동남방향으로 들어서 밀목치를 넘어가니 곧바로 용림제 상류가 나왔다.

곧 바로 덕산리 계곡을 들어서니 요천 최상류 덕산계곡으로 들어가는 비포장 자갈길을 들어섰다. 이후 4km 정도 계곡을 따라 탈썩거리며 올라가니 드디어 소목장을 하는 집이 나오고 약간 더 가서 공터에 차를 세우고 장구를 꺼내 등산준비를 하였다.

이후 물길을 따라 먼저 장안산 방향을 향해 오르며 물길의 방향, 유량 등을 살피며 올라가면서 이곳저곳을 살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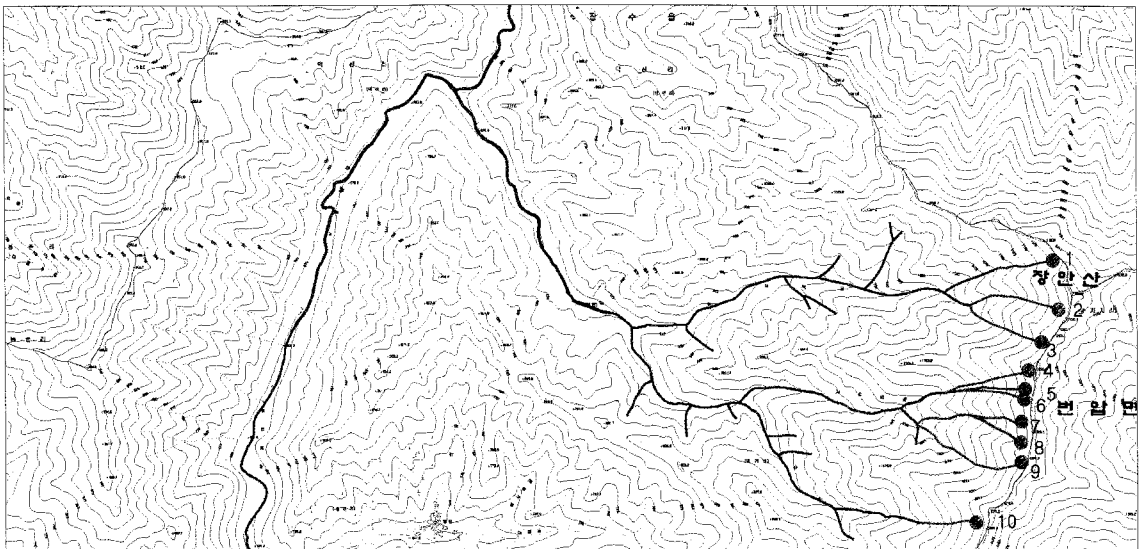
계곡은 단풍나무, 참나무 등이 많이 자라고 있는데 그 아래로는 산죽이 많았다. 고로쇠 수액채취용 비닐관이 상당히 상류까지 올라가 있었다. 얼마 정도를 올라가니 갑자기 물길이 너털지대로 들어가 하도 찾기가 어려웠다.



(그림 9) 요천 발원지

계속 올라가 정상 근처에서 발원지라 생각되는 지점 여러
 개를 이리 저리 왔다 갔다 하며 찾아서 좌표를 조사하였다.
 집으로 돌아와 각 GPS 좌표를 지도에 옮기고 도상에서 계
 산한바 요천의 발원지는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덕산리 장

안산 남쪽 1,220고지 서쪽 계곡인 가운데골 계곡이며 해발
 1,205m 지점의 북위 35°37'23", 동경 127°35'34"(GRS80좌표계)
 로 확인되었다. 📍



(그림 10) 요천 발원지(9번 지점)